

#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잡지의 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정지훈 · 김남일

## Research into academic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in the era of early Japanese imperialism

Jung Ji-hun · Kim nam-il

There were four academic journals on oriental medicine, published in the era of early Japanese imperialism. Research into these journals has derived the conclusion that the academic trend at the time were,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medicine, secondly, researches on 『Nai Kyung』, 『Sang Han Ron』 and finally, promotion of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by looking at the advantages of western medicine.

---

### I. 서론

한일합방이 된 후에 일제는 한의학을 여러 각도에서 탄압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의학의 없애려는 시도였는데, 조선의 의사제도를 일본과 같이 西醫(서의)단일제도로 만들려고 한 것도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에 있는 부족한 숫자의 서의로는 식민지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제는 1913년에 醫生(의생)제도라는 애매모호한 제도를 만들어 東醫(동의)<sup>1)</sup>들을 여기에 등록시킴으로써 신분을 격하시켰다. 이러한 ‘의생’이라는 격이 낮은 신분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는 韓醫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당시 한의들은 일제의 이러한 기도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강

---

1) ‘東醫’란 한국의학의 독자적 전통을 나타내주는 용어로, 현대의 ‘한의사(韓醫師)’를 말한다. 이하본 논문에서는 ‘한의(韓醫)’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구하였다. 한의단체의 설립, 한의학교육기관의 운영 등이 그러한 노력이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운동의 차원이 아닌 학술적 투쟁도 있었는데, 한의학술잡지<sup>2)</sup>의 간행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시대 초기<sup>3)</sup>에 간행된 한의학술잡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시기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당시 선각자들의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먼저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술잡지의 발간 연혁, 한의학술잡지의 발간 목적 등을 밝혔다. 그리고, 『內經』을 통한 경전 중심의 한의학,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匯通,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함, 『傷寒論』, 『金匱要略』을 통한 상한과 잡병 연구, 약물에 대한 연구 등의 소재목으로 한의학술잡지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한의학술잡지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술잡지의 발간 연혁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발간된 한의학술잡지는 다음과 같다.

① 『漢方醫學界(한방의학계)』 : 1913년 10월(제 1호) - 1914년 1월 15일(제 2호) : 총 2권 발행

② 『東醫報鑑(東醫報鑑)』 : 1916년 1월 1일(제 1호) - 1916년 3월 1일(제 2호) : 총 2권 발행

③ 『東西醫學報(東西醫學報)』 : 1916년 6월 26일(제 1호) - 1917년 6월 30일(제 8호) : 총 8권 발행

④ 『朝鮮醫學界(朝鮮醫學界)』 : 1918년 3월 15일(제 1호) - 1919년 9월 15일(제 11호) : 총 11권 발행

일제시대에 나온 한의학술잡지의 호시라고 할 수 있는 『한방의학계』는 1913년 10월에 조선의사회에서 洪鍾哲(홍종철)<sup>4)</sup>이 발행한 것인데, 이 잡지는 1914년 1월에 제 2호를 내

2) '한의학술잡지'란 한의학관련 학술잡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3)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를 한일합방을 한 해인 1910년부터 삼일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까지로 규정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이것은 1919년 이후 발간된 한의학술잡지는 이전에 발간된 그것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저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4) 1910년에 한의학의 쇠퇴를 안타깝게 여긴 명망있는 동의학자 8명이 동의학의 진흥과 부활을 위하여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八家一志同盟이다. 그 구성원으로는 나이순으로 林赫東, 洪鍾哲, 韓秉璉, 林炳厚, 金寬植, 趙炳瑾, 田光玉, 金永勳 등이다. 이들 중 홍종철과 조병근이 한의학술잡지 발행의 실무를 주도하였다. 홍종철(1852-1919)은 잡지의 발행인으로서 또한 의학강습소의 소장으로

고 폐간되었다.

이어서 나온 『東醫報鑑』은 1916년 1월 1일에 全鮮醫會(전선의회)<sup>5)</sup>에서 창간한 동의학 학술기관지로서 같은 해 3월 1일에 제 2호가 나온 후, 5월에 청산회를 가진 후 전선의회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폐간되었다.

『東醫報鑑』이 폐간되자 홍종철, 趙炳瑾(조병근)<sup>6)</sup> 등이 전선의회의 청산자금을 인수하여 『東醫報鑑』의 이름을 『東西醫學報』로 고쳐 1916년 6월에 다시 속간하였으나, 이 잡지도 1917년 6월까지 제 8호를 내고 재정난으로 정간되었다.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홍종철을 저자 겸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제 6호부터는 의학강습소 소장인 홍종철은 강습소의 일에만 전념하고, 대신에 조병근이 편집인을 金光淳(김광순)이 발행인을 맡아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쇄물의 발행이 경부총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시대적 이유로 제 때에 발행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sup>7)</sup>

그 후에 조병근이 일본인 靑柳綱太郎<sup>8)</sup>의 명의로 1918년 3월에 『東西醫學報』의 이름을 『朝鮮醫學界』로 고쳐 다시 속간하였다. 『朝鮮醫學界』제 1호가 『東西醫學報』의 제 9호와 같은 것이다. 『朝鮮醫學界』도 1919년 2월에 제 10호를 낸 후 9월에 나온 제 11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朝鮮醫學界』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東西醫學報』의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연재물들의 연재가 계속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잡지는 『漢方醫學界』로 부터 『東醫報鑑』을 거쳐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로 이름을 바뀌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 『漢方醫學界』로 부터 『朝鮮醫學界』까지의 발간잡지의 총수는 모두 23권이다.<sup>9)</sup>

## 2. 한의학잡지의 발간 목적

『韓方醫學界』,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의 발간 목적을 살펴

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형, 『청강의감』, 성보사, 서울, 1984.)

- 5) 1915년에 서울에서 일제가 개최한 산업박람회격인 공진회를 틈타 전국의 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전국의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들이 모여 강연회와 좌담회 등을 열었다. (이중형, 「한국동의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
- 6) 1868년에 태어난 그는 八家一志同盟의 회원으로 잡지발행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홍종철이 잡지발행의 일을 떠난 후에는 『朝鮮醫學界』의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 7)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발행 간격이 두 달이 될 때도 있었고, 발행일자 또한 불규칙하게 발행이 되었다.
- 8) 일본인 의사로 동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朝鮮醫學界』의 사장으로 지내면서 동잡지에 ‘健康長壽養生論’이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 9) 이중형은 위의 논문에서 이들 논문이 모두 22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東西醫學報』의 제 4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입수한 잡지에도 제 4호는 빠져 있으나, 잡지의 저본이 된 서적과 잡지의 목차 나열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제 4호는 원래부터 빠진 결본이 아니라 보관상의 이유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보면 다음과 같다.

『韓方醫學界』는 ‘漢方醫學의 改良’이라는 목적 하에 한의학과 관련된 제 이론들을 싣고 있다. 여기에 실린 조선의생회의 간부들의 여러 글들을 통하여 이들이 행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東醫報鑑』은 전선의회의 학술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전선의회에 참가한 여러 저명한 한의들의 논설과 강연 등을 싣고 있으며, 한의학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 내용들을 많이 싣고 있다.

『東西醫學報』는 당시 서울에 있던 公認醫學講習所(공인의학강습소)<sup>10)</sup>에서 강의한 내용을 실은 강의록 형식의 잡지이다. 이는 강습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한의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취지가 『東西醫學報』 제 1호에 실려 있는 ‘序’와 ‘범례’에 잘 나타나 있다. ‘序’에서 저자(홍종철)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의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의학강습소의 교육내용을 잡지를 통하여 익힘으로써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한의학이 나아갈 길은 꾸준한 학문연마를 통하여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up>11)</sup> ‘凡例’에서는 『東西醫學報』의 동의학과 서의학

10) 1905년에 설립된 동계의학교가 3년만에 폐교된 후 1908년에 홍종철, 조병근 등이 동의학 강습소를 개설하여 강좌를 시작하고, 1912년에 경성부의 허가를 얻어서 ‘공인의학강습소’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도 1919년에 폐소되고 만다. (이종형. 위의 논문)

11) 序

醫可不學而醫乎아 學可不習而醫乎아 必曰學而又習之니라 醫可泥古而醫乎아 亦可狃今而醫乎아 必曰古而又今之라야 可以爲醫니라.

人言이 皆出於此어늘 我亦以爲然호노니 謂再讀이 勝於一見이오 積衆智호며 并學說호야 心無구呑에 對古證호야 補短取長호는 爲仁之術也일식니라.

人各有學호니 學之인된 欲其精通이오 且欲傳於後人호야 爲我學之不朽호는 是學之原理며 人之本能이오 非強行而然也라 然이나 今日朝鮮에 醫學時代는 處如新穀이 未登에 舊穀이 將盡호야 顛頷之態가 飢色이 慘憺호니 其故由何오 試一言之호리다.

東醫之受免許者 六千餘號에 至호니 此不爲不多로되 今此六千餘人이 住所未必一定이오 生活은 以醫爲副業호고 年少者는 從他奔走호야 廢業이 相續호며 老大者는 月計減損호야 附則免許者不能補其零數호니 此는 視感의 退步오.

以技倆之未能으로 自招費人之嘲譏호고 法令之未嫻으로 不免取締之嚴密호며 只守糟粕에 從乏資本호야 設局未幾에 旋即停止호며 對遇焉不及西醫호고 營利焉狀況不振호야 日日增加者는 墮落心而已오 更無發興遠存之望호니 此는 心理의 退步오.

一樹를 栽培호고 一獸를 牧養호에 於此에 必有專門教授호며 吾人이 必有專門受學호야 其履歷이 足以能行其事業이라도 更必有形式의 卒業證書然後에 始乃有免許證은 全世界通行不易之正則이어늘 今日我東醫者不是人命夭壽에 委任을 受호 最難最重之事歟아 然而無專門之教호며 無專門之學호야 其實이 已空虛而又無形式의 卒業證호니 此는 自然淘汰에 歸홀뿐만이아 法律上不認定者也오.

朝鮮에 在호 醫師는 朝鮮, 內地, 外國人을 并호야 不過爲六百餘人인즉 此不能配布於半島人民은 所謂博施濟衆이 堯舜도 其猶病諸也로다 醫業이 此運을 際호야 不容不汲汲然學而又習호고 故而又新호야 有專門之技能然後에 斯道可以不朽而人類有幸福矣라 於是에 合衆人之智호며 副衆人之望호야 以東西古今의 學理로 教授於公認醫學講習所學生而選取講義호야 編成月報호야 供覽於同志同業者호노니 任重而途遠이로다 有補於斯道는 吾不敢期오 讀者諸君에 在호다 호노라

著者(洪鍾哲) 識

각 과목의 수록 배경과 의의, 기타 의리 등을 수록한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다.<sup>12)</sup>

『朝鮮醫學界』는 『東西醫學報』와 간행목적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서양의학과 동의학의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발전시키자는 목적 하에 『東西醫學報』부터 연재한 동의학과 서의학의 회동과 관련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실고 있다.

### 3. 한의학잡지의 내용 분석

일제시대 초기의 한의학잡지 중 특히,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는 공인의학강습소에서 강의한 동의학과 서의학의 강의록을 교과과정<sup>13)</sup>에 따라 매회마다 연재하고 있

#### 12) <凡例>

- 一. 是書는 人의 疾病을 治療호야 壽域에 躋하는 醫學을 編輯호이다.
- 一. 是書는 東醫科와 西醫科를 一冊에 鳩集호야 對古證今호야 補短取長코자 호이다.
- 一. 是書는 參考科를 置호야 博物學, 物理學, 化學을 加入호은 日用的 常識이 될뿐만안이라 醫學者 先 知지 안이지 못호이다.
- 一. 參考科에 東西古今醫 醫史及醫學에 對호는 疑問을 編入호며 特히 朝鮮醫史는 廣搜膽載코자호는 文獻이 無徵호야 遺憾이 됨이다.
- 一. 是書에 醫律, 雜俎 其他醫理에 必要호을 隨時記入호야 同業界에 法令及時宜를 警醒호이다.
- 一. 是書는 公認醫學講習所에 三箇學年教授호는 學說로 其講義를 取호야 月報를 刊行함이다.
- 一. 是書는 公認醫學講習所에 一二三學年教授호는 科程이 有호마 此에 依호야 次第로 編成코자호이다. (但, 各學年科程表는 別紙에 參考호.)
- 一. 是書第一號는 各學科의 定義와 端緒를 一一 編入호은 是書의 將來材料를 先示호이오 次號에 始호야 單히 講習所의 學年學科를 隨호야 編輯코자호이다.

#### 13) <公認醫學講習所 教科課程 及 每週教授 時數表>

學年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時數	課程	時數	課程	時數	課程
修身	1	修身, 要旨	1	修身, 要旨	1	修身, 要旨
國語	3	會話, 作文	3	會話, 作文	2	會話, 作文
算術	2	珠算, 算術	2	珠算, 算術		
理科	2	物理, 化學				
臟腑, 經絡學	4	東醫學				
脈經	2	東醫學	2	東醫學		
解剖, 生理學	4	新醫學				
病理學			3	新醫學		
傷寒學	3	東醫學	2	東醫學	2	東醫學
雜病學	3	東醫學	2	東醫學	2	東醫學
診斷學			2	新醫學		
外科學			2	新醫學, 東醫學	3	新醫學, 東醫學
婦人, 產科學					4	新醫學, 東醫學
小兒科學					2	東醫學
藥物學			2	新醫學, 東醫學	2	新醫學, 東醫學
眼耳鼻咽喉科學					2	新醫學
內科學			3	新醫學	2	新醫學
四象學					2	東醫學
計	24		24		24	

(此에 의호야 月報를 편집호되 修身, 國語, 算術은 편입치 안이호)

다. 이러한 노력은 다수의 의생을 양성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韓方醫學界』와 『東醫報鑑』에 실려있는 각각의 글들도 함께 분석하여 당시의 학술적 경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한다.

1) 『內經』을 통한 경전 중심의 한의학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동의학강의 중 病理學, 診斷學, 脈經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病理學

『素問·上古天真論篇 第一』, 『靈樞·百病始生 六十六』, 『靈樞·憂恚無言 第六十九』, 『素問·生氣通天論篇 第三』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질병 발생의 원인과 이러한 병인에 의한 질병발생의 기전 및 합당한 치료원칙, 침자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夭壽와 질병의 발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사람이 차초한 것(섭생의 도를 잃어버림)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三因)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네 편의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질병의 원인 및 발병기전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동의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첫머리에 놓고 있다. 또한, 상기의 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원문만을 수록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강습소 학생들이 이들을 다 암송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사료된다.

② 診斷學

『素問·五藏生成篇 第十』,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 등에 나와 있는 色澤診斷法과 『脈經』에 나와 있는 각각 맥의 형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平脈早晏法’, ‘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 ‘辨尺寸陰陽榮衛度數’, ‘平脈視人大小長短男女逆順法’, ‘持脈輕重法’,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 등의 제목으로 기본적인 진단법을 신고 있는데,<sup>15)</sup> 이러한 진단법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들을 암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익혔음을 알 수 있다.

③ 脈經

‘脈經’에서는 『素問·三部九候論篇 第二十』, 『素問·方盛衰論篇 第八十』, 『素問·脈要精微論篇 第十七』, 『素問·玉機真藏論篇 第十九』,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 『素問·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素問·經脈別論篇 第二十一』, 『靈樞·根結 第五』 등의 편을 인용하여 각각 ‘三部九候’, ‘七診’, ‘診有十度, 診有陰陽’, ‘脈合四時陰陽矩規’, ‘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 ‘脈分四時無胃曰死’, ‘逆從四時無胃亦死’, ‘五臟平, 病, 死脈胃氣爲本’, ‘三陽脈體’, ‘六經獨至病脈分治’, ‘寸口尺脈診諸病’, ‘部位’, ‘呼吸至數’, ‘五臟之氣脈有常數’, ‘搏

( 『東西醫學報』 제 1호. )

14) 『東西醫學報』 제 1호.

15) 『東西醫學報』 제 1호.

堅稟散爲病不同’ 등의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이를 통하여 한의학에서 진단의 큰 대강이 되는 ‘맥’에 대한 정상, 비정상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病理學, 診斷學, 脈經 등 세 강좌에서 행하여진 『內經』의 암송, 강론 등을 통해 한의학을 경전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匯通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동의학강의 중 동의학과 서의학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臟腑論(장부론)’, ‘血證論(혈증론)’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강의는 청나라 唐宗海(당종해)의 ‘中西匯通(중서회통)’의 사상과 그 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종해가 지은 『中西匯通醫書五種(중서회통의서오종)』 중의 일부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고 있는데, ‘장부론’은 『中西匯通醫經精義(중서회통의경정의)』의 내용을, ‘혈증론’은 『血證論』의 내용을 각각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臟腑論

‘臟腑論’에서는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내용을 순서대로 전제하고 있다.<sup>17)</sup> 이는,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정신이, 일제하에 퇴색해가는 동의학의 살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데서 기인한 듯하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겪었던 근대중국의 혼란기에 중의학 또한 혼란과 왜곡을 겪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唐宗海의 노력이 ‘中西匯通’의 시도로 나타난 것처럼,<sup>18)</sup> 이러한 唐宗海의 노력과 유사하게 일제하 동의학자들도 서의학의 이론과 동의학의 이론을 아울러 배우는 것이 동의학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臟腑論’에서는 서양과학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內經』 등의 문장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연현상을 한의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부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설명함에 있어 서양해부학적 지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醫林改錯』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醫林改錯』의 실증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용이 단순히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에 대한 독자와 편집진 간의 토론이 심도있게 행하여진 것<sup>19)</sup>으로 보아 이를 잘 알 수 있다.

16) 『東西醫學報』 제 2호, 제 3호.

17) 『東西醫學報』 제 2호 ~ 『朝鮮醫學界』 제 9호.

18)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9) 『東西醫學報』 제 5호. 창원에 사는 金鎮煥이라는 의생이 보낸 질의에 대하여 『東西醫學報』의 편집부가 답을 하였다. 방광, 삼초, 명문 등을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

② 血證論

‘혈증론’에서는 당종해의 『血證論』의 내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있다.<sup>20)</sup> ‘陰陽水火氣血論’, ‘男女異同論’, ‘臟腑病機論’, ‘脈證死生論’, ‘用藥宜忌論’ 등의 기본 이론부터 吐血, 嘔血, 咯血, 唾血, 咳血, 鼻衄, 腦衄, 目衄, 耳衄 등의 각종 출혈질환에 대하여 당종해의 『血證論』의 내용을 전제하여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상의 두 과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한의계의 인사들은 한의학술잡지를 통해 한의학과 서의학을 회통시켜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함

한의학술잡지에서는 서의학강의도 제법 심도있게 이루어 졌다. ‘解剖生理學(해부생리학)’, ‘診斷學(진단학)’, ‘藥物學(약물학)’, ‘傳染病學(전염병학)’, ‘外科學(외과학)’ 등의 강의 내용은 당시의 서양의학을 강의하였던 학교의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朝鮮醫學界』로 넘어오면서 양이나 질 모두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의학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입장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특히, 『東醫報鑑』에서는 일본인 서의사들이 쓴 전염병과 외과학에 대한 글을 신고 있는데,<sup>22)</sup> 이러한 것들이 그 예이다.

전염병과 외과학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해부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1918년에는 고무인형으로 해부학 실습을 하였고, 같은 해에 의약전습회에서는 서의를 초빙 토끼 해부실습을 실시하여<sup>23)</sup> 강습소 교수들에게 서양의학을 교육시키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參考科(참고과)라는 과목을 지면을 통해 강의하여 물리학, 화학, 식물학, 동물학 등의 기초자연과학이론의 내용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강좌가 이루어지게 된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의생선발 시험문제<sup>24)</sup>가 한의학 관련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서양의학과 자연과학이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일제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기도의 하나로 실시한 의생

와 응답이다.

20) 『東西醫學報』 제 7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21) 『朝鮮醫學界』 제 1호의 첫머리에서 조병근은 논설을 통하여 서양의학과 동의학의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이룩하는 것이 지금 의학계의 대세라고 말하고 있다.

22) 『東醫報鑑』 제 1호, 제 2호.

23) 『朝鮮醫學界』 제 4호.

24) 1917년 5월 19일 경기도 경무부에서 행한 의생시험의 문제 (『東西醫學報』 제 8호)

1. 猩紅熱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2. 亞細亞虎列刺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3. 麻疹의 療法을 記호라
4. 副睪丸炎(囊癰)의 症狀과 療法을 記호라
5. 微瘡, 微毒의 療法을 記호라



선발시험은 한의학을 서양의학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나가려는 점진적인 시도였다. 이러한 기도에 이용된 결과물이 이러한 강좌와 같은 공여지책을 강구하게 한 것이다.

#### 4) 『傷寒論』, 『金匱要略』을 통한 상한과 잡병에 대한 연구

한의학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에는 상한과 잡병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이들 강의도 당종해의 저작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 ‘상한학’에서는 『傷寒論淺注補正(상한론 천주보정)』의 내용을, ‘잡병학’에서는 『金匱要略淺注補正(금궤요략천주보정)』의 일부 내용을 차례로 신고 있다.<sup>25)</sup> 상한학의 강의는 첫머리에 ‘熱病者 皆傷寒之類也’(『素問·熱論篇 第三十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한의 연구 또한 『내경』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당종해의 저작 중 주석에 해당되는 중요부분을 뽑아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잡병학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강의 내용은 당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皇漢醫學(황한의학)의 내용과도 비교해 볼만 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5) 약물에 대한 연구

약물에 대해서는 ‘약물론’과 ‘본초문답’으로 나뉘어 실려있다. ‘약물론’은 약물총론이라는 내용으로, 한의학적인 내용은 四氣와 五味의 각각의 특징과 그 작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도로 소개하고, 서의학의 약물학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다. 한의학적인 내용은 ‘本草問答’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는데, ‘본초문답’에서는 唐宗海의 저작인 『本草問答』의 내용을 옮겨 신고 있다.

의학강습소에서는 이처럼 약물학 강의를 서의학과 동의학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한의학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을 통하여 살펴본 일제시대 초기의 한의학의 경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서의학의 회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회통’의 사상이 당시의 한의학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 4. 한의학잡지가 후대에 미친 영향

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는 강습소 내의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의생이 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습소 출신뿐만이 아니라 강습소 밖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은 수가 의생으로 배출되었다.<sup>26)</sup>

25) 『東西醫學報』 제 2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그리고, 초기 학술잡지 간행 등의 한의학 지키기 노력은 1920년대 이후의 東西醫學研究會(동서의학연구회), 1930년대의 한의학부흥운동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동서의학연구회에서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동서의학연구회월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東洋醫學(동양의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다. 1930년대의 언론에 연재된 한의학 이론논쟁을 통한 한의학부흥운동은 모두 일제시대 초기의 上述한 한의학술잡지 발행을 통한 한의학 지키기 노력이 촉매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Ⅲ. 결 론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술잡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었다.

1. 일제시대 초기의 한의학술잡지는 1913년에 발간된 『韓方醫學界』가 그 효시가 된다. 전선의회를 계기로 1916년에 발간된 『東醫報鑑』과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1919년까지 발간된 잡지는 총 23권이다.
2. 한의학술잡지 간행의 주목적은 의학강습소에서 강의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여 당시 한의학을 업으로 하는 의생들, 한의학도 등에게 한의학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3.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은 『內經』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강의 방법은 『내경』을 암송, 강론하는 등이 주였다.
4.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은 동의학과 서의학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나라 당종해(唐宗海)의 ‘중서회통(中西匯通)’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5.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을 통해서 서양의학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것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자는 정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한의학술잡지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 가운데는 상한, 잡병 및 약물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도 있다.
7. 일제시대 초기 한의학술잡지 간행 등으로 고조된 한의학 지키기 운동은 1920년대 이후의 동서의학연구회의 활동, 1930년대의 한의학부흥운동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6) 1918년 현재 의학강습소의 졸업생은 6회에 걸쳐 배출되어 총 159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이들 중 의생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52명이다. (『朝鮮醫學界』 제 4호)

<參考文獻>

- 1) 기창덕. 『韓國近代醫學教育史』,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서울, 1995.
- 2)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98.
- 3) 당중해. 『中西匯通醫書五種』, 동남출판사(영인), 서울, 1984.
- 4) 맹웅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 5)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6) 이종형. 『晴崗醫鑑』, 성보사, 서울, 1984.
- 7)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
- 8) 홍원식.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3.